

삶의 끝자락에서 머물 곳

박지환 지음, 『일본 도시 하층지역에서의 공공적 실천』(2024,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을 읽고

김지은 리즈대학교 부교수

I. 들어가며

본 저서는 국내에 요세바(일용노동자 지구)를 소개하는 최초의 민족지로서, 특히 일본 시민사회 및 사회운동 연구, 도시공간, 주거/건강권과 복지정책 관련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의미 깊은 저작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연사회’와 ‘파견촌’ 등과 관련된 방송보도와 출간물들로 국내에 알려진 신자유주의 일본 사회의 빈곤과 소외 문제가 오사카의 요세바인 가마가사키와 같은 주변적 공간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지역 운동과 대안적 실천을 통해 대응되며, 새로운 사회적 연대가 형성된 사례를 소개하는 의의를 지닌다. 빈곤 통치와 반빈곤 운동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은 특히 한국과 중국의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조문영의 『빈곤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의 인류학』(2022)과 함께 읽을 것을 추천한다. 필자 또한 요코하마의 요세바인 고토부키 지구에서 현장연구를 진행한 입장에서 본 저서의 출판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의 사용권과 주거권, 사회적 소외와 배제, 빈곤과 복지에 대한 후속 연구와 실천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저자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분당 신도시의 계층적 분화를 다룬 석사 연구(박지환, 2003)부터 일본 오사카의 피차별부락(에도시대 신분차별의 역사를 지닌 지역 공동체) 중학교 교육에 대한 박사 연구(박지환, 2011; Park, 2011)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의 계층 불평등과 공간적 분화에 대한 오랜 관심을 바탕으로 면밀한 현장 연구를 수행해온 경력을 지니고 있다. 본 저서는 특히 그의 오사카 피차별 부락에 대한 박사 연구와 함께, 인접한 일용노동자의 집단 거주지로 형성된 요세바 가마가사키의 역사와 현재를 조명함으로써, 전후 오사카 도시 공간의 계층적 분화와 재구성에 대한 이해를 한층 심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마가사키는 도쿄의 산야 지구, 요코하마의 고토부키 지구와 함께 일본의 3대 요세바로서, 전후 회복기와 고도 경제 성장기에 증가한 일용노동자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구획되어 관리되어온 공간이다. 요세바에는 새벽 인력시장, ‘도야’¹로 일컬어지는 간이숙박소를 비롯해 일용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상담,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음식점, 유흥시설 등이 집약적으로 형성되어 일용노동자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지탱하는 장소로 기능해왔다. 일용노동시장의 전성기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곳곳의 요세바에서 노동 현장(飯場, 한바)으로 전전하면서, 중산층의 생활영역과는 별다른 접점 없이 도시 하층 공간에 머무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공간적 분화는 1990년대 거품 경제의 붕괴로 인해 흔들리게 되는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도시 곳곳의 공원, 지하도 등의 이른바 중산층의 공간에서 가시화되면서 전국적으로 ‘홈리스 문제’를 대두시키는 배경을 형성하게 된다. 필자가 2010년대 초에 현지 조사를 진행한 고토부키 지구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의 일용노동자조합, 주민자치회와 기독교계 활동가들이 공고한 연대를 형성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요코하마 시 행정기관과 교섭을 하면서 일찌감치 ‘복지마을’로 전환된 상태였다. 그리하여 지역 주민 역시 노숙자 및 전직 일용노동자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유입된 단신 고령층 복지 수급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상시적으로 복지시설 직원들과 각종 자원봉사자들이 드나드는 모습이 매우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에 비해 2010년대 당시 가마가사키는 현역 일용노동자들이 소수이지만 활동하고 있으며, 일용노동자들의 연대 문화가 남아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여전히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필자가 가마가사키에 답사를 간다고 전하자, 한 전직 일용노동자 주민은

¹ 숙소를 뜻하는 ‘야도’(宿)를 거꾸로 쓴 은어.

“가마가사키는 무서운 곳이니 조심해라.”라고 조언을 할 정도였다. 본 저서는 그와 같은 가마가사키의 이른바 ‘복지마을’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최근의 동향을 꼼꼼히 전하고 있다.

본 저서는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시민사회의 신자유주의 논리에의 포섭에 초점을 맞춘 비판적 연구 경향과 대비되어, 가마가사키의 공간적 전환 속에서 ‘자기책임’이나 경제적 ‘자립’이 아닌 새로운 형식의 연대와 자립이 창출되는 과정을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1장의 연구 현장과 방법론 소개에 이어, 2장은 전후 가마가사키가 “주변적 남성성(marginalized masculinity)이 투영된 장소”(69쪽)로 형성된 역사를 고찰하였고, 3장은 1990년대 노숙인 지원운동이 등장한 배경과 이 운동이 점차 비영리조직(Non Profit Organization; NPO)화되는 과정을, 4장은 2000년대 지역 주민 주도로 본격화된 마을 만들기 활동과 지역 재개발 계획의 추진, 5장과 6장은 이와 같은 가마가사키에서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고령의 생활보호 수급자들의 고령을 막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예술(5장)과 지역 활동 프로그램(6장)을 통해 지원하는 움직임을 담고 있다. 7장은 이와 같은 다층적인 변화를 사회적으로 주변화된 일용직 및 노숙인, 고령 복지수급자들을 지원하고 공생을 모색하며 대안적인 ‘이바쇼’(居場所), 즉 ‘머물(居る) 곳(場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하게 분투하고 연대한 공동의 실천으로 창출된 가마가사키 특유의 ‘장소의 힘’으로 이론화하고 있다.

이처럼 본 저서의 핵심 개념은 ‘이바쇼’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자는 이를 “개인이 수행할 역할을 갖고 있고 소속감을 느끼는 곳,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곳, 따라서 그곳에 있는 것을 편안하다고 느끼며 그곳에 있으면서 존중받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공적인 장”으로 정의하고 있다(47쪽). 이는 저자가 사회학자 혼다 유키의 개념을 빌려 설명하듯, 일본의 고도경제성장기의 “가족·학교·회사간의 긴밀하고 연속적인 기능적 연계”를 통해 유지되었던 “전후 일본형 순환 모델”의 생활보장 시스템이 붕괴하면서(32쪽), 궁지에 내몰린 개개인들이 마땅히 소속될 장(場, 바)으로서 ‘이바쇼’의 상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배경에서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고려했을 때 가마가사키에서의 이바쇼 만들기 운동은 저자가 정치학자 사이토 준이치(2009)를 인용하며 정리하

듯,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사회운동에서 나타난 새로운 흐름, 지배적인 공공권에서 배제된 소수자를 위해 친밀권적 성격을 갖는 대안적 공공권을 만드는 실천”(143 쪽)의 일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한다.

II. 요세바 지역 운동에 뿌리를 둔 ‘장소의 힘’

저자가 묘사한 가마가사키의 지역 운동과 그 전환은 필자에게 친숙한 고토부키 지구와도 많은 부분에서 상통한다. 이와 같은 요세바 지구의 ‘장소의 힘’은 이 공간들이 일본 주류 사회의 공간과 맺는 관계를 고찰할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필자는 저자가 논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해내는 ‘이바쇼’로서의 성격을 가마가사키가 갖게 된 가장 큰 전환의 계기로 노숙인의 생활보호수급권을 쟁취하게 된 2003년과 2009년의 후생노동성의 방침(25쪽)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전국 반빈곤 활동가들의 연대 투쟁 결과로 획득하게 된 이 변화로 비로소 노숙인들도 복지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가마가사키와 같은 요세바의 간이숙박소를 근거지로 생활보호 수급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요세바의 주변적인 남성들의 장소에 대한 권리와 생계가 보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빈곤과 복지의 연계로 빈곤이 비정치화되는 과정(조문영, 2022)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요세바의 주요 인구가 고령화되고 질환과 장애 등으로 ‘가동능력’을 상실하면서 지역 활동가들과 정부의 정치적 의제가 달라졌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이전에 강조되었던 노동권이나 치안의 문제보다도 생존과 돌봄의 문제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지역 활동가들과 행정 당국 간의 대립보다 협력을 바탕으로 한 복지 확장이 주요 관건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침은 2002년 실시된 ‘홈리스 자립지원법’을 보완하며, 가마가사키와 같은 요세바들이 노숙인들, 혹은 노숙으로 몰리게 된 단신 고령자층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식처로서 기능하도록 전환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홈리스 자립지원법’이 ‘자립 의지’를 지닌 노숙인들의 취로 지원을 목적으로 요세바 지구 내 또는 인근에 설립된 홈리스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들을 ‘훈육’하는 통치 장치로서 작동한다면, 요세바를 거점으로 노숙인들의 생활보호수급권이 보

장되면서 이 훈육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거나 낙오된 노숙인들도 주거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Kim, 2018: 10). 이러한 빈곤 통치는 공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노숙인/빈곤층을 요세바에 몰아넣는, 이전의 일용노동자의 요세바 ‘봉쇄’ 정책(Gill, 2001: 185)의 연장선상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활동가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요세바를 생존권의 마지막 보루로 지키고자 하는 끈질긴 분투로 ‘장소의 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일본에서도 생활보호수급이 한국의 기초생활수급처럼 빈곤을 둘러싼 제도와 서사의 ‘의무 통과점(obligatory passage point)’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조문영, 2022: 27), 생활보호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급여금액이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생존권 실현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만큼 생활보호수급에는 ‘나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도덕적인 비난과 부정수급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따르기 마련이라서, 여론과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매우 위태로운 권리 양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생활보호 관련 무료 상담 핫라인에서의 상담내용을 토대로 200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보호 신청 창구에서 신청자에 대한 모욕, 경찰 동원 위협, 친족 부양의무 등 신청자격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신청을 저지하는 이른바 ‘미즈기와(水際)’ 작전²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2015: 21-23). 요세바 활동가들이 노숙자의 생활보호 신청에 동행하거나(136쪽) 생활보호 집단신청을 지원하는 것도 단지 신청서류 작성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미즈기와’ 작전을 통해 수급 자격이 있는데도 신청 단계에서 거부당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무소에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노숙인들에게는 이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시도조차 할 수 없었던 생활보호라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곳이 요세바이기도 하다. 필자가 현장조사를 했던 고토부키 지구에서도 “고토부키에 가면 어떻게든 될 거야”라는 동료 노숙인의 말에 가와사키시에서 14km 남짓 걸어서 고토부키 지구에 와서 지원단체와 연결되어 생활보호 수급자가 된 사례가 있었다(Kim, 2018: 1-2). 생활보호가 권리보다는 시혜로 여겨지는 일본에서 요세바가 예외적인 생존권의 보루가 된 것

² 적군이 상륙하기 전에 해상에서 물리치는 군사 작전 용어.

은, 적어도 요세바에서만큼은 생활보호 자격이 있는 이들이 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한 활동가들의 지난한 노력 덕분인 것이다.

본 저서에서는 이런 요세바의 장소적 예외성을 특히 활동가들과 행정 당국의 협력 체제에 초점을 맞춰 논하고 있는데, 이 협력 체제가 지니는 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전의 양면처럼 연계된 행정 당국과의 투쟁과 대립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3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운동에서 복지로의 전환 과정에 엿보이는 고민과 갈등들이 어떤 식으로 지속되며 해소되는지 살펴본다면, 현재 일본 사회의 반빈곤운동 지형의 고유성이 더욱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저자가 지적하듯, 1970년대 신좌파 노동운동에 뿌리를 둔 일용노동조합 측이 지역 내의 가톨릭계 지원 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1993년 반실업연락회의를 출범시킨 후, 이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1999년 NPO 가마가사키 지원기구를 설립하면서 운동 진영 내부에서 반발이나 회의도 없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노숙인 지원을 위해서는 “반실업운동가들이 직접 NPO를 설립·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측의 주장에 힘이 실려 가마가사키 지원기구가 설립되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다음 투쟁으로의 통과 지점”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132쪽). 동시에 지원기구의 설립 이후에도 노동조합 측을 중심으로 한 반실업연락회의를 통한 국회, 각 행정부처 및 지자체를 상대로 한 요구서와 집회 등을 통한 투쟁 역시 계속 진행되었고(134쪽), 저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례적인 월동투쟁을 앞두고 오사카부 및 시와의 교섭도 매년 이어지고 있다. 즉, NPO를 중심으로 한 노숙인 지원과 복지는, 기존 요세바 노동운동의 ‘사회 해방’ 염원을 저버리기보다는 이를 불확정한 미래로 지연시키면서, 국지적인 소모전을 병행하여 번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마가사키와 같은 요세바가 지니는 ‘장소의 힘’의 저변에는, 지역 운동 진영과 행정 당국 간의 대립과 협력이 얹힌 시공간의 정치 속에서 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그 누구도—매년 월동투쟁 구호로 외쳐지듯—‘조용히 길바닥에서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분투한 활동가들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보호수급권 확보가 요세바 지역운동의 중점 사안이 된 만큼 생활보호를 원하지 않는 노숙인들의 상대적인 소외 현상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이는 4장의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 엿볼 수 있다. 많은 경우, ‘환경

미화'나 치안은 노숙자를 축출하는 구실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생활 환경개선을 추구하는 마을 만들기의 움직임은 노숙자의 장소권과 대치되는 경향이 있다. 마을 만들기가 저자가 논하는 '상향식 주민 운동'이라고 해도, 누가 '지역 주민'의 자격을 지니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가에 있어서는 노숙인과의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를 보면, 노숙인의 거주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는 모임(가마가사키 거주문제 간담회)에서 출발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 및 주거에 대한 지원과 지역 전체의 거주환경을 향상·지원하는 두 가지를 모두 추구”(155쪽)하는 가마가사키 마을 재생포럼이 이끌고 있어 포용적인 공생의 움직임으로 그려지고 있다. 재생포럼을 주도하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전문가, 간이숙박업자 등을 중심으로 지역의 자치회, 사회복지협의회, 노숙인지원단체 등 여러 단체들이 연합하여 꾸린 가칭 하기노차야 마을 만들기 확대회의는 하기노차야 초등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추구하면서도 노숙인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돋보인다(162쪽).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을 만들기의 성과를 보면, 노숙인을 배제하기 위해 폐쇄되었던 하기노차야 북측공원을 ‘아이들 스포츠 광장’으로 정비한다든가(162쪽), 일용직 노동자와 노숙인을 위한 시설이었던 아이린 종합센터를 “노숙인뿐만 아니라 여성, 청년, 외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와 같은 다양한 주체를 지원하는 시설로 재편”(172쪽)하고자 하는 ‘니시나리 특구구상 사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마가사키 마을 만들기가 꿈꾸는 미래에 노숙인이 어느 정도로 자리잡고 있을지 회의감이 드는 지점이 있다. 아무리 노숙인과의 공생을 추구한다고 해도, 저자가 지적하는 대로 “지역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용직 노동자와 노숙인”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마을 만들기가 지니는 한계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175쪽).

이와 같은 한계는 마을 만들기 운동 진영뿐만 아니라, 노숙인 지원 운동에서도 드러나는데, 노숙인 지원이 생활보호수급권 쟁취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어떻게든 복지 수급을 하지 않고 자력으로 노상에서 버텨보려는 이들을 위해서는 무료 급식(炊き出し, 타키다시), 강제 철거 반대 운동 등의 방어적인 형태로만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듯하다. 재건축이 예정되어 폐쇄된 아이린 종합센터에서 지속되고 있는 노숙 점거 운동의 현황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2024

년 5월 최고재판소가 오사카부의 손을 들어준 1·2심에 항의한 노숙인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행정 당국은 2025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앞두고 서둘러 센터 앞 철거 강제 집행을 강행했다고 한다(NHK, 2024). 이로써 일용노동자와 노숙자의 최후의 보루였던 가마가사키의 한 시대의 막이 내린 듯하다.

III. 새로운 주체성과 관계성의 창출

그렇다면 요세바의 지역운동은 결국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공모(cooptation)한, 실패한 사회운동인가(49쪽)? 저자는 지배/종속과 저항의 이분법을 문제 삼은 푸코의 권력관계론을 거론하며, 신자유주의 통치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체성과 관계성들의 창출에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50-52쪽). 고령의 생활보호수급자들의 일상적인 실천과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지원 활동들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 속에서 취로를 최종 목적지로 삼은 ‘자립’이나 ‘갱생’이 아닌,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삶의 형식과 관계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실상, 고도경제성장기 기업이나 가족을 통한 복지 안전망에서 제외된 일용노동자들이야말로 이미 ‘자기관리’와 ‘자기책임’의 논리를 체현한 삶을 영위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일거리를 잃은 이후에도 어떻게든 노상에서 켄이나 폐지를 수거하며 자력으로 버티고자 하는 노력은 이러한 체현된 윤리의 논리적인 귀결일 수 있다(Gill, 2012; 본문45쪽). 그에 비해, 생활보호를 받으며 일과 가족을 중심에 두지 않는 새로운 삶의 보람과 의미를 모색하고, 삶을 운택하게 꾸려가는 이들의 실천이야말로,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두는(*laisser mourir*)’ 생명정치에 균열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Foucault, 2003: 241).

5장의 NPO코코룸에서 운영하는 가마가사키 예술대학의 프로그램을 단순한 취미활동이나 소일거리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그곳을 찾는 이들이 그만큼 죽음과 소멸을 곁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혼자 있으면 생명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해 죽음을 맞이하자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참여했다는 60대의 생활보호수급자(195쪽), “가마가사키가 [도쿄에 있는 요세바] 산야처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며 가마가사키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다짐하는 노숙 노동자(196-197쪽), “필요

없으면,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든지 버려 버리는” 회사에서 다른 동료들과 섞이지 못해 코코룸을 유일한 낙으로 삼은 20대 파견노동자 남성(198쪽)의 목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생물학적 생존이 아닌, 자전적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한다(Fassin, 2009: 49). 특히 고령, 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 가마가사키 생활보호수급자들의 삶을 둘러싼 고민은, 초고령화를 맞은 일본사회 전체에 공명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6장의 가마가사키 지역 NPO연합체가 운영하는 히토하나 프로젝트는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일본의 지역사회에 확산된 ‘삶의 보람 만들기(生きがいづくり)’ 프로그램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그만큼 가마가사키가 다른 지역보다 먼저 실존적 위기를 겪고 그 타개책을 앞장서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저자는 특히 히토하나 프로젝트 직원들의 지원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영화관람, 공동식사, 소극단 활동 등이 “자립과 의존을 구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난 상생적인 관계 맺기의 실마리를 제공함에 주목한다(226쪽). ‘전국의 가마가사키화’가 거론되는 가운데(30쪽), 시인 다니카와 순타로가 가마가사키 노동자의 삶을 표현한 “의존하지 않으면서 의존하는(恃まず恃む)” 자립, 즉 “타자에게 의존하면서도 자율성을 유지하는 형태의 자립”(202쪽)이 일본의 미래를 살아갈 새로운 삶의 형식이 될 수 있음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IV. 나가며

장기 불황, 고령화, 신자유주의화 등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한 일본 시민사회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부조리가 가마가사키라는 공간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가마가사키는 다른 지역보다 앞서 새로운 삶의 형식과 관계 맺기를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져 온 곳이기도 하다. 저자는 우리가 “이곳의 시민들이 창조하고 있는 이바쇼, 그리고 이런 자리가 표상하는 ‘의존하지 않으면서 의존하는’ 관계가 앞으로 일본 사회가 추구할 사회적 연대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을 권장하며 책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일본 사회를 넘어 돌봄과 생존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삶을 지

탱하는 사회적 관계의 논리와 그 공간적 기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재구성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투고일: 2025년 3월 18일 | 게재확정일: 2025년 4월 2일

참고문헌

- 박지환. 2003. “분당신도시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공간과 계급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1. “현대 일본사회에서 부락문화의 형성: 중졸 부락 남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4(3), 151-182.
- 조문영. 2022. 『빈곤과정: 빈곤의 배치와 취약한 삶들의 인류학』. 글항아리.
- Fassin, Didier. 2009. “Another Politics of Life is Possible.” *Theory, Culture & Society* 26(5), 44-60.
- Foucault, Michel. 2003.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75-1976*. Translated by David Macey. New York: Picador.
- Gill, Tom. 2012. “Failed Manhood on the Streets of Urban Japan: The Meanings of Self-reliance for Homeless Men.” *The Asia-Pacific Journal* 10(1), 1-21.
- Kim, Jieun. 2015. “The Politics of Survival in Homeless Jap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 _____. 2018. “The Other City: Alternative Infrastructures of Care for the Underclass in Japan.” *Asian Anthropology* 17(1), 1-23.
- NHK. 2024. “大阪 あいりん総合センター 路上生活者ら立ち退き強制執行.” NHK 関西 News Web. <https://www3.nhk.or.jp/kansai-news/20241201/2000089628.html> (검색일: 2025. 3. 18.).
- Park, Jeehwan. 2011. “School as Classificatory Machine: Sorting, Socialization, and Class in a Japanese Middle School.”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